



# Made in Korea 2000

A link - Artists living in Korea

# Andrew OWEN

## 앤드루 오웬

### 서울에서

서울의 정취를 포착하기 위해 많은 사진을 찍었다. 각도와 프레임, 조명과 초점 등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이 사진들은 나의 주관적 시각에서 본 서울일 뿐 진짜가 아니다. 길거리마다 스티커 사진기계가 즐비하다. 나는 단지 기계로 가린 커튼을 들어 올림으로써 주변환경을 담았다. 길거리 사진기를 통해 서울 거리의 이미지를 포착하는 것은 마치 대나무 붓으로 대나무의 이미지를 재현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방식으로 내용과 맥락이 하나가 되어 주제와 작품, 작가와 관객 사이의 거대한 골을 메운다. 스티커 사진기계는 서울을 사진으로 그려냄과 동시에 서울의 실제 한 부분이기도 하다. 나의 역할은 단지 대상이 있는 그대로 표현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작품은 오사카 교토에서의 작품을 포함하는 여섯 개의 스티커 사진 작업 중 하나이다.

### Where It's At-Seoul

To capture the flavor of Seoul, I've taken many photographs. But being able to choose the angle, framing, lighting and focus, these photos were only my subjective views of Seoul, not the real thing. More direct is that there are many Neo Print photo-sticker machines everywhere - cameras on every corner. I simply lift the background curtain enabling the machine to capture an image of its surroundings. A found camera from the streets of Seoul capturing an image of the streets of Seoul, directly, like a bamboo brush manifesting an image of bamboo. In this way, the great gulfs between subject, medium, artwork, artist and viewer are eliminated, as content and context have become one. The photo sticker are not only photographic depictions, but actual parts of Seoul. My role has been reduced to seeing an opportunity, and allowing the subject to express itself, as it is.

This work is part of a suite of six photo-sticker works which also includes Osaka and Kyoto.



서울에서 캔버스위에 잉크젯 프린트  
Where it's At - Seoul Inkjet printing on canvas 100x150cm 1999